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외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집회15, 15-20
[화답송] 시편119(118), 1-2, 4-5, 17-18, 33-34(◎1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
○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
○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다.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
○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르오리다.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
[제 2독서] 1코린2,6-10
[복음 환호송] 마태11,25참조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마태5, 17-37 <또는 5, 20-22나, 27-28, 33-34나, 37>

성가	8시 미사	입당 329	봉헌 215 218	성체 160 166	파견 445
	11시 미사	입당 329	봉헌 215 218	성체 160 166	파견 445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6주일(2월 16일)		연중 제7주일(2월 23일)		연중 제8주일(3월 2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이마리크레센시아	김글라라(순희)	전베로니카(진영)	이바오로(명국)	이엘리사벳(자영)
제 1 독서	김안드레아(찬곤)	허라우렌시오(순구)	이바오로(명국)	구미카엘(창희)	강요한(신호)	심미카엘(태규)
제 2 독서	김글라라(순희)	김테레사(승희)	정스텔라(애리)	이골롬바(정연)	김안젤라(영선)	심헬레나(승화)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율법, 그리스도인에게 걸림돌인가?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의 설교 가운데 산상설교(5장~7장)의 일부분으로 구약에서 언급된 율법의 계명에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첨가하여 하느님의 뜻을 실천 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첫 부분인 율법에 관한 말씀의 바탕에는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보고 있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 구세사 안에서 구약의 계명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연계된 새로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 분이요 드러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율법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19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 율법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그분의 가르침(1절 참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큰 재산이요 기쁨(14절)임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사랑하고(47절) 있으며, 율법의 실천으로 구원을 얻을 수(166절)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모든 구원의 근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많은 부분을 비판하시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는 과연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돌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음을 오늘 복음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를 문제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안에도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며, 약간의 불완전함을 지니고 있지만 당신께서 새 계명과 더불어 완성되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오늘 복음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마태 5, 17) 하심으로써 율법의 연속성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복음서 안에서 율법과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신 것일까요? 이는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뜻을 찾아 모든 이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율법의 시행 세칙에 매달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느님의 계명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오히려 율가미로 만들어버리는 ‘율법주의’를 질타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 사랑의 계명의 기초이며 완성이요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김명선 사도요한 신부/부산교구 영성의집 원장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화해하여라

오늘 복음 말씀 앞에 당장 드는 생각은 ‘내가 성을 내거나 바보라고 한 사람은 없었나? 멍청이라고 한 사람은 없었나?’ 입니다. 비록 죽도죽은 아니지만, 굳이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그런 말씀 앞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이나 최고의 회에 넘겨지고, 마지막엔 지옥에 넘겨질 것이라는 말씀에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불멘소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오히려 항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바보’, ‘멍청이’ 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에서 머리가 ‘빈 놈’, ‘하느님도 모르는 놈’ 을 뜻하기에 심한 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말씀 속에서 그 처벌이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네가 마지막 한 닢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마태 5,26)하시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반사로 일어나는 내 일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너무 정확히 찔러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큰 싸움이 있는 곳에서 원인을 알아보면, 지나가다가 어깨 한 번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엄청나게 미워하는데, 그 시작은 자기만 식사 자리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할끔 쳐다봤다고 때리고, 목청 높였다고 주먹이 날아가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상이 다르면 처연하기 만한 글귀로 상대를 단죄합니다. 아니 어떤 맨 전쟁의 원인조차도 시시합니다. 물론 대단하게 보이는 명분을 당사자들은 내세우지만, 결국엔 자기 욕망 하나 더 채우기 위해 욕하고 싸우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 시작을 보면 너무나 작은 불씨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부딪힘이 형편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은 정말 악의 화신이고,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자비로운 웃음도 있으며, 선에 대한 갈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봅니다.

내가 풀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이 평화롭지 않은 마

음과 공격적인 성향은 정말 타당하고 정당한 것일까요? 내가 욕을 쏟아 붓는 그 사람은 욕먹을만한 뽕 달린 도깨비일까요? 나는 왜 계속 심판하고 있고, 더 큰 심판을 또 만들고 있으며, 그래서 내 마음은 지옥이 되어 있을까요?

엄청난 에너지의 낭비 속에 내 삶이 피폐해진 경우라면 잠시 멈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불화의 원인이 엄청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원인을 스스로 크게 만들어 가는 중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한 움큼 정도의 것이었다면 정리하는데, 포기하는데, 이해하는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내가 빚진 그 한 닢을 갚고 평화롭기를,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에페 4,26)

강귀석 신부
개봉동성당 주임



피곤하게 먼 그 두 눈을 닦게 하소서.
눈에 어린 그 빛나는 눈물도 닦게 하소서.
그 부드러움, 그 맑음, 그 따뜻함을 닦아
시들지 않는 지극한 평화 누리게 하소서.
글_마종기 시인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용기

제 아내와 떨어져 지내면서 기러기 아빠가 된 지 10년이 되어 갑니다. 어느 날 아내와 저는 최근 인기 있다는 미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후에 그녀는 공항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곳에 엄마를 기다리는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베개를 하여 저와의 아쉬움을 달래던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저 주인공 아저씨는 아무리 봐도 연기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다른 배우들은 다 자연스러운데, 유독 저 아저씨만 그래. 매사에 멋있어 보이려고만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자기 어떻게 생각해?”

약간의 공백이 흐른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사실 나는 말의 자막을 읽느라 배우의 표정을 볼 겨를이 없어. 그래서 난 아직도 송강호나 설경구, 최민식이 지구상에서 연기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

또다시 약간의 침묵이 흐른 후 아내가 말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군! 그럼 앞으로는 저 아저씨가 나올 때 글을 읽지 말고 표정 연기를 봐. 그러면 아마 내 생각이 날거야. 나도 필리핀에서 그렇게 할게.”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떠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나온 30년간 그녀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글을 빨리 읽지 못한다는 관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자기답다는 용기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1993년 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팝송의 제목을 궁금해하던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기초적인 영어를 모를 수가 있어?’ 라는 반문을 하지 않고, 늘 진지하게 답변해주던 그녀가 떠오릅니다.

그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노래의 제목을 번역하면, ‘~할수록’ 인 것 같아.” 그 이후 저는 ‘사랑할수록’ 이라는 곡을 작곡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필리핀에서 다시 돌아온 날, 우린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에게 지나온 30년 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얘기를 처음 꺼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스스로 나를 만들어왔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당신이 나의 모든 걸 만들어 왔던 것 같아! 좌절의 어두움에 빠져있던 그 수많은 날들에 늘 빛이었던 당신, 고맙다.”

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것보다 송고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도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며, 겨울비가 내리는 밤에 적습니다.

‘사랑한다고..., 영원히!’

김태원 바오로
가수

+ 목자의 소리

‘하느님의 이 선물인 신앙은

교회가 걷는 순례의 길을 지속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르고 복돋워주어야 하는 것임을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빛」 6항

가톨릭전례

첫째 계명

너의 하느님은 나 주님이다. 바로 내가 너를 이집트 땅 중 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탈출 #20:2-5).

릭교회교리서 #2097항).-

기도

부부가 대화를 별로 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대화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흠숭도 기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소연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상호적인 대화이고, 그러므로 하느님 흠숭을 위한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소원은 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아들은 어머니에게 용돈을 더 많이 드리는 것으로만 효도를 다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된 효도가 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하는 흠숭은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희생 제사

성부 하느님께 최고로 마음에 드는 흠숭을 드린 분은 누구 일까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셨고, 급기야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봉헌을 100% 본받는 것은 어렵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와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항상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하느님께 흠숭과 감사, 탄원과 일치의 표징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거룩한 친교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여 행하고 또 그럼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참다운 제사이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099항). -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1) 첫째 계명의 중요성

유교 사회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기르셨기에 마땅히 효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대한 효도의 마음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다른 덕목들도 실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에서는 하느님께 대한 흠숭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천주를 저는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첫 언명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 신경의 모든 구절은 이 첫 구절에 종속된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99항). 그러므로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첫째 계명은 이 근본 믿음에 대한 당연한 응답입니다.**

2) 첫째 계명의 실천

흠숭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에게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좋은 음식을 드리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부모님이 내 존재의 근거이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흠숭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달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계명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베푸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당연히 갖게 되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 흠숭은 마리아께서 노래하셨듯이, 하느님께서 큰일을 하셨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느님을 찬미 찬송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을 폐쇄하는 데에서, 죄의 속박에서, 세상의 우상 숭배에서 해방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097항).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2월 16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해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해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해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정진옥	신엘리사벳
	연 최마틸다(유리자)	한발레리아(원숙)
	연 이마리아(옥임)	차리디아
	연 박영옥	차리디아
	연 차예로니모(창섭)	차리디아
	연 김베드로(영길)	김로사(은수)
	연 김베드로(영길)	성루카
	생 전데레사(윤자)	순교자의 모후
	생 정안드레아(일양)	가족
	생 정안드레아(일양)	향심기도회
	생 정안드레아(일양)	김젬마
	생 박데레사	서데레사
	생 김아가다(옥희)	조바실리오
	생 신말가리다(효수)	신엘리사벳
	생 김글라라(클로이)	김로사(은수)
2월 18일 화	연 최베드로(휘중)	가족
	연 채다니엘(인국)	가족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2월 19일 수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생 송미카엘가정	송아가다
	생 외손자	송아가다
2월 20일 목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2월 22일 토	생 성령기도회 활성화	성령기도회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99	293	34	426
헌 금	\$726	\$2,002	\$47.75	\$2,775.75

< 교무금 > \$1,460

박상일(1-12) 정영언(1-2) 배젬마(1-2) 남금지(2)
송분학(2) 육승주(2) 김정복(2) 최순일(2)
김관숙(2) 이종규(1-2)

< 성소후원금 > \$120

박상일(1-12) 송분학(2) 김정복(2)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

~~~~ 오늘 간식은 이종규 미카엘/로사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항 -

- ◆ 알는 이들을 위한 기도 : 오늘 미사 중
- ◆ 김명식 가브리엘 신부님 부임 미사 안내  
2월 16일(오늘) 8시/교중미사
- ◆ 본당신부님께서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북미주 사제연수에 참가하실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평일미사는 평상시와 같이 있습니다.
- ◆ 2차 현금 안내  
2월 23일(다음주) :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및 북미주한인사목사제협의회 후원을 위한 현금
- ◆ 성지가지를 3월 2일까지 회수합니다.(성당 입구)
- ◆ 2014년도 교무금을 약정하시어 친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현재 198 세대 중 104세대가 약정하셨습니다.)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 평협회의 : 2월 16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사목회의 : 2월 23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재속 프란치스코회 모임  
일시 : 3월 1일(토) 오후 12:30  
장소 : 교육관 106호실  
문의 : 김 가브리엘 510-910-2239
- ◆ 영상으로 하는 사순피정  
일시 : 3월 16일(주일) 오후 1시 - 5시 30분  
참가비 : 무료(전신자 점심 제공)  
\* 피정 후 차편이 필요하신 분들은 3월 9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 ◆ 빈첸시오 홀리스 식사 제공 봉사  
일시 : 2월 27일(목) 오후 4시  
\* 봉사해 주실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싸인업 양식에 기재해 주십시오.

**2월 구역모임 테살로니카2서 1-3장**

|       |             |                    |
|-------|-------------|--------------------|
| 1 구역  | 2월22일(토) 6시 | 최명숙 메들린 맥          |
| 2 구역  | 2월22일(토) 6시 | 조덕행 에드몬드 맥         |
| 4 구역  | 2월22일(토)6시반 | 이종규 미카엘 맥          |
| 5 구역  | 2월23일(일)미사후 | 대건회관               |
| 6 구역  | 2월22일(토)5시반 | 조상희 마리아 맥          |
| 7-1구역 | 3월 8일(토) 2시 | 파운더스룸              |
| 7-2구역 | 2월22일(토) 6시 | 최대연 다니엘 맥          |
| 8-1구역 | 2월22일(토) 5시 | 김원조 도미니코 맥         |
| 8-2구역 | 2월22일(토) 6시 | University Village |
| 10 구역 | 2월23일(일)미사후 | 대건회관 회의실           |

- ◆ 오바마케어(의료개혁법) 상담  
3월 2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일일피정  
일시 : 3월 15일(토)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장소 : Presentation Center (프레젠테이션 센터)  
19480 Bear Creek Rd. Los Gatos,  
주제 : 일치의 여정  
강사 : 한승주 스테파노 산호세 성당신부님  
최동원 베드로 교육부장  
참가대상 : 각 본당 성령기도회 봉사자 및 기도회원과 관심있는 교우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신청 및 문의 : 각 본당 성령기도회
- ◆ 전례 복사단 모집  
누구든지 관심 있는 분이라면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박규진 알베르토 415-519-6811
-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건강검진 안내  
여의도 성모 병원에서는 해외 교우들을 위하여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약 40%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비치된 추천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